

2020년 일자리 예산현황 분석

김 유 빈*

I.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요

본고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 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예산편성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 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서 정의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 참여대상으로 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통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분류에 따라, ①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PES and administration), ② 훈련(Training), ③ 고용 인센티브(Employment incentives), ④ 보호 고용과 재활(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⑤ 직접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⑥ 창업 인센티브(Start-up incentives), ⑦ 실직자 소득 보장 및 지원(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⑧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등 여덟 가지 프로그램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실업소득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난 10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일자리사업 예산의 지속적 증가추세하에, 특히 2017년 이후의 예산 증가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기여건 악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노동시장 격차 심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동력 약화 등의 위기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시로 한 일자리예산 확대기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확대 추이는 2020년으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kim@kli.re.kr).

<표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 분류, OECD

대분류	중분류
공공고용서비스 및 행정 (PES and administration)	취업알선 및 관련서비스(Placement and related services) 실업급여 행정(Benefit administration)
훈련 (Training)	공공훈련(Institutional training) 작업장훈련(Workplace training) 통합훈련(Integrated training) 견습특별지원(Special support for apprenticeship)
고용장려금 (Employment Incentives)	채용장려금(Recruitment incentives) 고용유지지원금(Employment maintenance incentives)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Job rotation and job sharing)
보호 고용 및 재활(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보호고용(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재활(Rehabilitation)
직접일자리창출 (Direct job creation)	
창업지원 (Start-up incentives)	
실직자 소득 보장 및 지원 (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실업급여(Full unemployment benefits) 부분적 실업급여(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파트타임 실업급여(Part-time unemployment benefits) 정리해고 보상(Redundancy compensation) 파산보상(Bankruptcy compensation)
조기은퇴 (Early reti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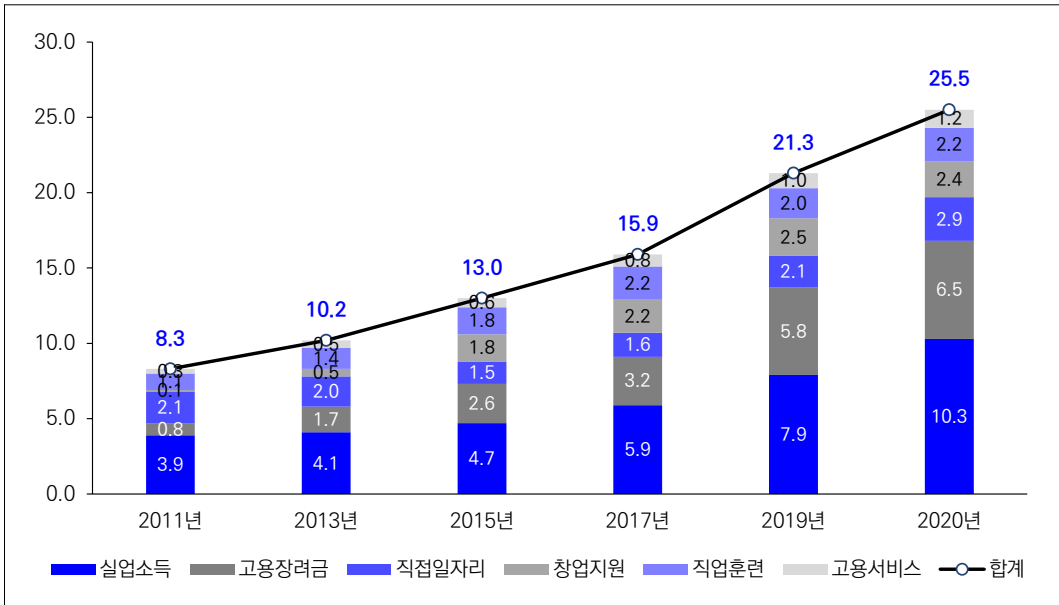
자료: OECD, Coverage and Classification of OECD Data for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s in Labour Market Programmes.

로 이어져, 2020년도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20.1%(4.3조 원) 증가한 25.5조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0년도 정부 총지출의 5.0% 수준이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실업소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2020년도 예산규모가 10.3조 원(4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용장려금(6.5조 원, 25.5%), 직접일자리(2.9조 원, 11.2%), 창업지원(2.4조 원, 9.2%), 직업훈련(2.2조 원, 8.8%), 고용서비스(1.2조 원, 4.7%)의 순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예산규모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자리 예산규모는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OECD 가입국 평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예산규모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GDP 대비 0.6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20%에 크게 못 미친다. OECD는 노동시장정책(Labor market program)을 앞서 살펴본 8개 세부유형 외에 크게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 ALMP)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 : PLMP)으로 나누는데, ‘실직자 소득 보장 및 지원’과 ‘조기 은퇴’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그 외 다수 유형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한다. <표 2>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림 1] 일자리예산 유형별 규모 추이

(단위 : 조 원)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계획」.

다수 OECD 가입국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예산 비중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다. 한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되는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과 고용장려금 사업의 재정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의 예산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앞서 살펴본 OECD 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편성되는 한 해의 전체 정부예산은 일자리사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세부 일자리사업을 살펴보면,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등의 3개 부분하에 13개 프로그램, 11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 상이한 기준이 병행됨에 따라 국제비교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부처 간 세부 예산내역 편성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분류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현황을 정책 우선순위에 있고, 예산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창출 및 훈련, 고용평등 증진 등 3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 2017년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공공지출(GDP 대비 비중)

	고용 서비스 및 행정	직업훈련	고용 장려금	직접 일자리 창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합 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동적 노동시장 정책	합 계
호주	0.15	0.01	0.02	0.00	0.61	0.24	0.61	0.85
캐나다	0.12	0.06	0.01	0.01	0.56	0.22	0.56	0.78
덴마크	0.40	0.46	0.20	0.00	0.94	1.96	1.09	3.05
프랑스	0.24	0.28	0.04	0.20	1.97	0.87	1.97	2.85
독일	0.39	0.18	0.03	0.01	0.71	0.65	0.75	1.40
일본	0.07	0.01	0.06	0.00	0.15	0.15	0.15	0.30
한국	0.04	0.03	0.04	0.16	0.30	0.32	0.32	0.64
룩셈부르크	0.06	0.19	0.40	0.16	0.42	0.81	0.60	1.41
네덜란드	0.22	0.07	0.04	0.01	1.51	0.64	1.51	2.15
노르웨이	0.15	0.11	0.11	0.00	0.38	0.47	0.49	0.96
폴란드	0.08	0.01	0.10	0.02	0.10	0.42	0.20	0.62
포르투갈	0.05	0.16	0.15	0.03	0.60	0.41	1.04	1.44
스페인	0.15	0.11	0.08	0.10	1.43	0.68	1.51	2.19
스웨덴	0.28	0.13	0.48	0.00	0.47	1.25	0.53	1.78
스위스	0.11	0.18	0.08	0.00	0.64	0.61	0.67	1.28
미국	0.02	0.03	0.01	0.00	0.14	0.10	0.14	0.24
OECD	0.13	0.12	0.09	0.06	0.64	0.52	0.68	1.20

자료: OECD.Stat,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Public expenditure of LMP by main categories (% GDP).

II.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

1.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안전망 확충」 프로그램은 단위사업상 크게는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내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직급여(단위사업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비용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직급여 사업은 피보험자 규모

증가와 경기악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예산비중 증가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한 2020년 구직급여 예산은 9조 5,158억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조 3,330억 원 증가하였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세부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사업목표를 20만 명에 두고 있다. 2020년 예산규모는 구직촉진수당과 인프라 구축예산을 포함, 2,771억 원 규모이다.

2019년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단위사업명 : 국민취업지원제도)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수급목표가 5만 명으로 줄었으나,¹⁾ 전년도 계속지원분으로 인해 예산규모는 2019년 1,582억 원에서 2020년 1,642억 원 수준으로 증액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단위사업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2017년 기간 간 예산규모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2013년 1,696억 원 수준에서 2017년 3,305억 원으로 크게

〈표 3〉 구직급여 예산 및 참여인원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규모	5,122,829	5,335,068	6,157,196	7,182,783	9,515,779
참여인원	340,000	361,000	311,000	227,000	150,000

주 : 2019년 참여인원은 2019년 7월 집계규모, 2020년 참여인원은 목표인원.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표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 및 수급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2019	2020
예산규모	158,186	164,198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	80,000	50,000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연기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신규 지원규모 총당

증가하였다가 2018년 3,301억 원(청년구직촉진수당 제외), 2019년 3,7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수급자 수가 7.7만 명 줄어든 만큼, 예산규모 역시 2,447억 원 수준으로 감액될 예정이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의 인상효과와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신규가입자와 지원금 수혜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보수 기준이 210만 원 미만에서 215만 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목표 수혜대상자를 전년대비 41만 명 증가한 278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사중손실 최소화, 기가입자 지원중단(2021년)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기가입자 지원비율을 축소하였다. 이를 반영한 2020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791억 원 감액된 1조 1,629억 원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일자리 안정

〈표 5〉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및 참여인원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규모	313,557	330,478	502,943	370,960	244,673
참여인원	340,000	361,000	311,000	227,000	150,000

주 : 2019년 참여인원은 2019년 7월 집계규모, 2020년 참여인원은 목표인원.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표 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예산 및 수혜자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만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규모	520,227	520,200	893,179	1,341,932	1,162,881
지원금 수혜자 수	161	149	221	237	278

주 : 지원금 수혜자 수 : 고용보험료지원금 수혜자 수+국민연금보험료지원금 수혜자 수.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표 7〉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및 지원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2018	2019	2020
예산규모	2,546,458	2,818,824	2,164,71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수	2,641,575	2,378,703	2,299,628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자금을 2018년 이래 시행해 온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대적으로 가팔랐던 2018년 최저 임금 인상(16.4%)의 충격완화를 위해 3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의 안정화 및 사업의 한시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예산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2019년 2조 8,188억 원에서 2조 1,647억 원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2. 고용창출 및 훈련

고용창출 및 훈련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직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한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규모는 조선업종은 업황 회복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미편성하였으며, 그 외 집행실적과 고용위기지역 연장 및 자동차 등 경기침체 업종을 감안하여 편성된 바 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7억 원 감소한 351억 원 수준이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전문인력및지역성장산업지원,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역사업 중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²⁾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시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기가입 사업장(2018~2019년)에 대한 지속지원분과 신규지원분 9만 명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17,392백만 원

〈표 8〉 고용유지지원금 성과지표

(단위 : 백만 원, 명)

	2016	2017	2018	2019(7월)	2020
예산규모	31,406	85,000	33,563	38,763	35,089
지원규모	25,110	30,269	33,295	18,290	21,590

주 : 2019년 참여인원은 2019년 7월 집계규모, 2020년 참여인원은 목표인원.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표 9〉 고용창출장려금 성과지표

(단위 : 백만 원, 명)

	2017	2018	2019	2020
예산규모	262,032	392,616	872,217	1,168,305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입 가능.

(47.1%) 증가한 990,900백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용창출장려금 단위산업 전체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961억 원 증가한 1조 1,683억 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 사업 중 가장 두드러진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층의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7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원 인원 및 예산규모에 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과 신규지원인원 14만 명(2년형 14만 명, 3년형 1만 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2019년 9,972억 원에서 2020년 1조 2820억 원 수준으로 증액되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은 자치단체 주도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 지역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2020년 회계항목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으며, 지역일자리 균형 발전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 요구 증대에 따라 예산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예산은 현 고용위기지역(8개) 지원 금액 중 자치단체가 2019년 요구한 목적예비비 평균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금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대비 708억 원 증액된 1,79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사업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내일배움카드(일반, 고보)이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과 일반고 특화훈련, 일반직종 훈련으로 분류되며, 공통적으로는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들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체계가 하나로 통합 운영될

〈표 10〉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규모 및 가입인원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2016	2017	2018	2019(7월)	2020
예산규모	-	47,592	355,460	997,132	1,281,972
가입인원	10,000	40,170	106,402	85,348	150,000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표 11〉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예산규모 및 선정사업 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개)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규모	97,175	123,547	118,179	108,300	179,102
선정사업 수	486	472	459	458	-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표 12〉 내일배움카드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2016	2017	2018	2019(7월)	2020
예산규모	43,815	59,986	67,780	781,892	878,720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예정이며, 회계를 구분하여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고보 미가입 재직자 훈련(일반직종 훈련) 등 특화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979억 원)하되, 일반직종 훈련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고보기금으로 편성(7,808억 원)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예산은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지원인원 800명 순증, 일반고 특화훈련 3,500명 순증 등 지원인원 목표의 전반적 확대가 이루어져, 2020년 사업예산이 8,787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3. 고용평등 증진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은 크게 일가정양립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사업으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과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예산 비중이 높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 해소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 도모 등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출산전후휴가급여(-3,500명), 유산사산휴가급여(+67명), 육아휴직급여(+8,523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511명), 배우자출산휴가급여(+50,170명) 등 지원목표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한 지원단가 인상이 반영되어, 사업예산이 2019년 1조 4,553억 원에서 2020년 1조 5,43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재고용 등의 조치를 하는 사업주와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및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조기 은퇴 등 장년의 고용불안정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청소·경비 업종 등의 고용안정 지원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년연장·퇴직자재고용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을 포함한 고용

〈표 13〉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2017	2018	2019	2020
예산규모	1,084,585	1,311,068	1,455,276	1,543,248
지원인원	183,024	174,652	184,081	-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표 14〉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성과지표

(단위 : 백만 원,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규모		82,552	69,924	77,379	33,638	96,623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근로자 수	목표	5,100	5,355	9,000	7,000	1,700
	실적	6,682	9,685	-	-	-
	달성도	131.0	180.1	-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사업장 수	목표	-	-	-	3,400	3,400
	실적	-	4,449	4,485	-	-
	달성도	-	-	-	-	-
지급인원	고용연장	22,767	27,359	21,228	8,642	-
	임금피크	6,682	9,685	14,295	13,791	-

자료 : 고용노동부(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연장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임금피크제지원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용연장지원금 지급 승인원 및 임금피크제 지원 감소 및 인원 등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도에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528명), 임금피크제지원금(사업종료, -240명)의 지원목표가 줄었으나,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2,9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신규 10,948명)의 지원목표 증가와 지원단가 조정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630억 원 증가한 96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III. 맺음말

본고는 2020년도 일자리 예산안과 기존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별 예산 편성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별 성과 및 예산현황 분석에 이어, 재정지원 일

자리사업에 있어 주요 세부산업 단위의 운용전망과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경기변동,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정책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정책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던 기존의 고용안전망에 더해, 실업부조를 포괄하게 될 국민취업지원제도(2020년 7월 시행예정, 국회 입법 미의결)는 공공고용서비스(PES)의 대대적 개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상담직 공무원 2천 명 신규채용)된다.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생계보장,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책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부문의 지출증가 역시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층 대상 고용안전망 및 전달체계 개편과 맞물려,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한 실질적 취업유인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부문의 지출증가 수요 역시 증대될 전망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적정수준 및 효과성을 재검토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취업유인 제고 등 청년층의 실수요에 기반한 적정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구직급여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실업급여 지출규모 역시 증가(2019년 10월부터 급여금액 및 기간 연장)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서비스의 제도적 사각지대 역시 광범위한 상황(플랫폼 종사자 등 보호입법 강화 예정)이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향후 수년간 고용여건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비중이 높은 고용장려금사업(채용보조금 및 임금보조금)에 대한 정책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근속유지에 있어 확연히 실효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산사업의 한계로 정책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수혜자-비수혜자, 사업유형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한시까지는 예산규모를 유지하되 사업의 보편성을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년형 비중 축소 및 2년형의 물량확대는 이의 일환이며, 2년형의 추가금액조정(예: 만기적립금 규모 1,600만→1,200만 원), 중견기업 지원 비중 축소 등을 통해 지원목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여성·고령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요구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해당 고용장려금의 예산비중이 높고, 사중손실의 발생 가능성과 현금성 지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만큼, 고용장려금의 중장기적 운용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그에 따른 직무역량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신기술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 성인기 인적역량 확충에 필요한 평생학습 참여율은 여전히

히 낮은 편이며, 소득계층별 격차가 크고, 이에 따라 중장년층의 급격한 역량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훈련 참여가 저조하고, 직업(장) 이동 등에 따른 전직 지원도 미흡,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일자리 등에서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훈련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KLI**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8), 「2019년도 성과계획서」.

_____ (2019), 「2020년도 성과계획서」.

_____ (2019),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